



전북대 총동창회, 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굿샷'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는 지난 25일 동전주저 미트CC에서 모교 재학생들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 후원을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은 골프 라운딩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한편, 따뜻한 기부로 대학의 학생 복지 향상에 힘을 보탤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최병선 총동창회장이 천원의 아침밥 후원금 5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양진영 원장(김양박 이비인후과)이 500만 원, 전북은행 전북대 지점이 100만 원을 각각 기부했다.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는 단순한 친목의 자리가 아니라, 동문들이 하나 돼 후배사정을 살피려는 뜻깊은 자리"라며 "동문들의 따뜻한 마음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이어질 때 전북대학교의 내일은 더욱 찬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JB미래포럼 회원들,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

남원시는 JB미래포럼(회장 이연택) 회원들이 남원시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JB미래포럼은 전북 출신 경제인들이 모여 고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전 공유 단체로, 이번 기부는 남원 출신 인사들의 모금으로 이뤄져 참여한 경제 상황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상생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연택 회장은 "전북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생명 경제 수도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우리 단체가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최경식 시장은 "여러분 경제 여건 속에서도 빛나는 상생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JB미래포럼 덕분에 우리 남원과 전북이 재도약하는 데 든든한 동력이 될 것 같다"라고 감사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통동-풍년칼국수, 취약계층에 식사 대접

남원시 동통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동로 '풍년칼국수'(대표 형도준)가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20명에게 따뜻한 한끼를 나누었다. 풍년칼국수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식사 나눔 활동 전개 하고 있으며, 이번 나눔은 동통동의 1일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하여 발굴된 관내 소외계층에게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누적 총 188명을 지원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노준 대표는 "소소한지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여 조금이라도 이웃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항동,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서비스 지원

남원시 죽항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1일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발굴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가구에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번 봉사에는 남원로라리클럽(회장 최병진) 회원 30명, 남원비바봉사회(회장 황순숙) 회원 5명, 죽항동행정복지센터 직원 5명 등 총 40여 명이 참여 이불과 의류를 수거하고 세탁, 건조,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했다. 죽항동은 매달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를 운영해 안부 확인과 상담을 병행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소통과 책임, 현장 중심의 치안행정 구현”

조병노 신임 전주완산경찰서장 임명

경찰청은 지난 24일 '경찰의 별'인 경무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병노(55) 경무관을 신임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 서장은 1969년 전북 익산 출신으로, 남성고(37회)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전북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행정고시(39회) 재경직에 합격해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2004년 경정 특별채용으로 경찰에 들어왔다. 이후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형식기대, 국무총리실 행정정책관실, 경찰청 경무부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2013년 총경으로 승진한 뒤 경찰청 미래발전담당관



조병노 경찰서장

완주경찰서장, 경찰청 재정담당관,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서울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에는 전경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수원남부경찰서장을 지냈다. 특히 전북완주경찰서장 재직 당시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을 강화하며 2015년 완주군으로부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기도 했다. 조 서장은 청렴 감직한 공직자로 정평이 났으며, 고향 사랑과 전북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조병노 서장은 "전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따뜻한면서도 강한 경찰상을 실현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책임 치안을 통해 신뢰받는 완산경찰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임 유오재 전주경찰서장은 구미경찰서로 전보됐다. /이만호 기자

전북출신 임종명 경무관, 청주 흥덕경찰서장에 임명

경찰청은 '경찰의 별'인 경무관급 5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청주 흥덕경찰서에 임종명(58) 경무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 생활거점을 갖고 자란 임 서장은 전주 문정초교와 해성중, 우석고를 거쳐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그는 전북경찰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임종명 경찰서장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감각을 쌓았다. 임 서장은 2018년 8월 총경으로 승진한 뒤 김제경찰서장, 군산경찰서장,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북경찰청 경비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24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 국방대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마친 뒤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관으로 근무해 왔다. 임 서장과 함께 오랜 기간 근무한 동료들은 이구동성으로 "임 신임 서장은 강한 리더십과 균형 잡힌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지역 치안 안정과 주민 신뢰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은행 목련회, '도란도란 사랑 나눔 제빵 봉사활동' 펼쳐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목련회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랑의 빵 나눔터에서 '도란도란 사랑 나눔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은행 여직원들로 구성된 목련회는 평소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제빵 봉사도 사랑과 정성을 직접 담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과 자녀 등 60여 명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누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반죽 만들기부터 굽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정성껏 수행하며 직접 만든 마들렌 600여 개를 사회적 취약계층에 당일 전달했다. 작은 빵 한 조각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추위된 날씨 속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온기를 전했다. 김태희 목련회 회장은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직접 구운 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함을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겠다"고 말했다.



고창교육지원청 원어민보조교사 역량강화 등 연수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최근, 부산 일원에서 원어민보조교사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원어민보조교사의 교수 역량을 높이고, 담당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영어 수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부산교육지원청 영어도서관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수업 코칭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연수 주요 내용으로는 △원어민보조교사 간 네트워크 강화 △스코어링 사례 중심의 수업 나눔 △부산 지역 영어체험기관 탐방 및 문화체험 등이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학교 현장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영어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산교육지원청 영어도서관에서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원어민보조교사들이 한국 학생의 학습 환경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영어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전략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편, 전북은행 목련회는 '토닥토닥 마음힐링키트 제작', '쓰담쓰담 나무심기' 등 꾸준한 봉사활동과 함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성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기부를 이어오며 '따뜻한 금융 실천'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오상근 기자



김제시가족센터,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6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다문화가족과 시민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은 김제시민과 다문화가족이 교류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는 김제시의 대표 글로벌 문화행사다. 행사 1부에서는 기념식 및 모범 다문화가족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2부 화합 한마당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전통춤과 노래 경연대회가 펼쳐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부대행사로 6개국(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 대표 먹거리 무료 시식과 세계 국가·의상 체험, K-POP 데몬헌터스 호좌도 까치호랑이 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한 노무 상담(전북자치도 노동건강센터), 네일아트·타투체험(호원대학교 K-뷰티소재학과), 건강상담 및 응급기트 제공(지평산라이온스클럽 의료봉사단), 장기기증 상담(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풍성한 참여형 부스도 마련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스리랑카 커뮤니티의 요청으로 설치된 장기기증 부스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 /김제=곽도태 기자



전주비전대 간호학부, 제10회 졸업논문 발표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 간호학부는 지난 28일 비전관 4층 대강당에서 제10회 졸업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졸업논문 발표회는 대학의 지원과 수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발표회는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이 4년간의 학업과 임상실습을 통해 쌓은 전공지식과 연구역량을 공유하는 자리로, 간호학부 교수진과 내빈, 재학생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구두발표 4팀과 포스터발표 8팀 등 총 12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구두발표에서는 △HIV 감염 예방행위 의도 △여자대학생의 체중조절 행위 영향요인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출산 의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등이 다뤄졌다. /장은성기자



제5회 남원시 수어 문화제 개최

남원시는 지난 25일, 예촌 마당에서 농아인, 가족, 시민과 함께하는 '제5회 남원시 수어 문화제'를 개최했다. 수어 문화제는 농인과 건청인이 어우러져 함께 즐기며 수어와 농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수어 체험 부스를 통해 시민들이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인과 건청인 5개 팀이 수어 경연을 펼치는 등 다양한 수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수어 문화제에서 농인과 건청인이 함께 소통하는 한편, 시민의 수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더불어 사는 남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교육한마당서 초·중·고 금융교육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와 함께 지난 24일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남상길)이 주관한 '2025 순창교육 한마당'에 참가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NH농협은행만의 특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행복채움금융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농협은행 직원들은 행사에 참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인쇄물, 테블릿 시청각 자료, 용돈관리 게임, 저금통 게임 등을 통해 맞춤형 눈높이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참석자들은 학습몰도 증명하였다. 특히, 금융상식 퀴즈 정답자, 추천 당첨자 등에는 순창장류 캐릭터 상품, 문구류, 우리쌀을 제공하면서 아침밥 먹기 등 농심전심 운동도 전개하여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순창=이영일 기자

김제 슈퍼와 백구면에 마시따 햅쌀 10kg 100포 기부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27일 김제 (유)슈퍼와(대표 강신태)가 취약계층을 위해 마시따 햅쌀 10kg 100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마시따 햅쌀은 (유)슈퍼와의 대표 브랜드로 김제 지평선 평야의 드넓고 비옥한 땅에서 생산한 미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은 상등급 신동진 쌀로 생산부터 도정까지 책임관리하고 있다. (유)슈퍼와 강신태 대표는 "성품 다가온 추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 이웃이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화자 백구면장은 "올해 햅쌀이 비싸서 직접 사먹을 엄두도 못내는 취약계층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제=곽도태 기자